

25/8 1차

公害상담 「녹색의 전화」 開設된다

주민 公害被害지원...784-2003, 2004

公害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하게 될 「녹색의 전화」가 국내 처음으로 개설된다. 朴英淑 평민당부총재는 환경오염때문에 피해당하는 이들의 문제해결을 목표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1의3 여성백인회관에 환경문제상담전화 784-2003, 2004를 개설, 오는 28일 상오 11시 현판식을 갖는다.

「녹색의 전화」의 한 관계자는 「공해피해의 민원부분을 효과적으로 접수키위한 것」이라고 개설배경을 설명하고 「접수된 주민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지원책을 모색하는 등 환경운동의 매개체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산되살리기 운동 전국적으로擴散전망

내무부, 「1社1山운동」 유도 각 市道에 지시

산되살리기운동이 전국주요기업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내무부는 삼성그룹의 산되살리기운동이 효과를 보고 있는데다 국민적 호응을 얻고 있다고 판단, 최근 시·도지사에게 관배상장기업社를 중심으로 「1社1山」운동을 적극 전개토록 유도하라고 지시했다.

내무부는 이에앞서 산되살리기운동에 대기업을 참여시킨다는 원칙아래 1백24개상장社(주로 대기업)를 선정, 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 등과 이미 협의를 마무리지었다. 내무부는 시·도지사에게 이번 지시에서 선정된 1백24개소기업중 관내에 있는 기업에 대해 ▲기업규모 ▲산되살리기에 대한 호응도 등을 면밀히 파악, 1社1山운동에 적극 참여시키라고 시달렸다. 한편 삼성그룹은 최근 그룹社인 삼성생명이 북한산성을, 삼성전자가 남한산성을 맡아 쓰레기수거 등을 적극 전개, 산되살리기운동의 표본이 되었으며 삼성측은 이 운동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